

[메타 플랫폼스 26Q2 Preview] 광고는 달리는데, 투자 부담의 출구가 보일까



26.07.30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7 월 30 일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다

메타 플랫폼스는 7 월 30 일에 26Q2 실적을 발표한다. 시장이 가장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 결국 한 가지다. 직전 분기에 전년 대비 33%까지 재가속한 **광고 매출 성장률**이 기저효과를 만나면서 어디까지 정상화되느냐, 그 속도다. 작년 같은 분기 매출이 475 억 달러였으니 비교 기준이 한결 높아졌다. 회사 가이드نس(자체 전망)는 580 억~610 억 달러로 제시돼 있고, 우리는 585 억~605 억 달러 범위에서 착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. 이 숫자가 가이드نس 상단에 가까울수록 '광고 엔진이 여전히 견재하다'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.

세율이 정상화되면 주당순이익은 크게 내려온다

직전 분기 주당순이익이 10.44 달러로 나왔지만 그중 3.13 달러가 일회성 세금 혜택이었다. 이번 분기는 그 혜택이 사라지면서 세율이 13~16%로 돌아온다. 우리 추정 범위는 **주당순이익 7.0~7.5 달러**다.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전분기 대비 급락처럼 보이겠지만, 이건 이미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구조적 조정이다. 진짜 가늠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진 40~41%를 지켜내느냐에 있다.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46% 급등하고 전체 비용 증가율이 매출 성장률을 살짝 앞서는 흐름이 지속되는 만큼, 이 마진 방어 여부가 수익성의 체력을 가늠하는 핵심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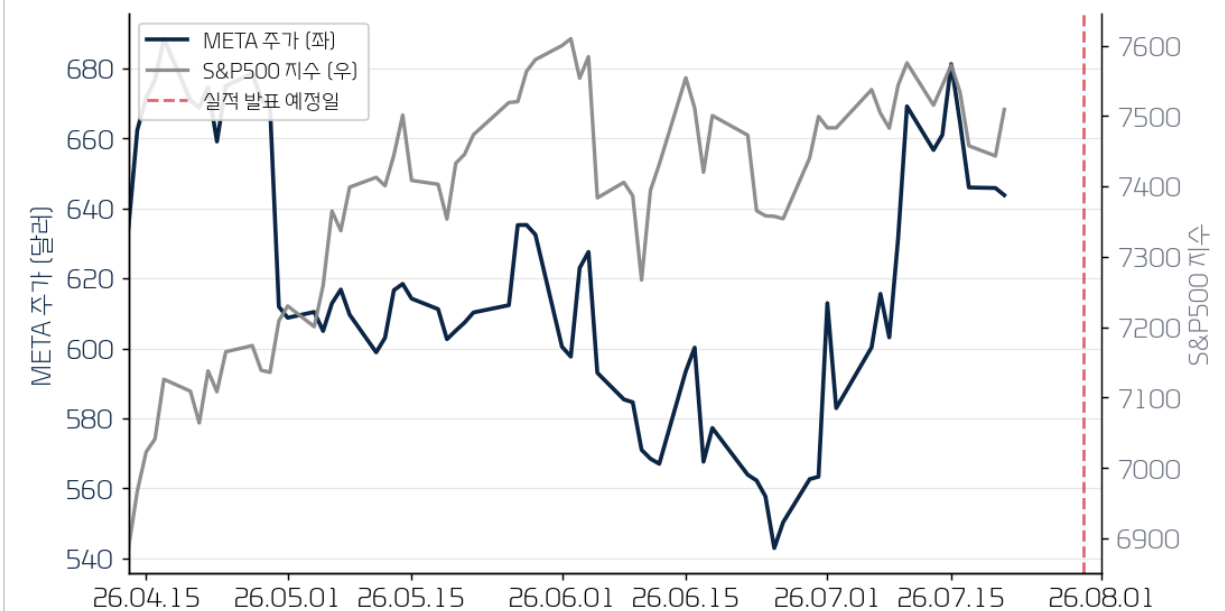
메타 플랫폼스 주가와 12 개월 선행 주당순이익 추이



설비투자 궤적과 Anthropic 딜이 새로운 변수다

올해 설비투자 가이드스가 1,250 억~1,450 억 달러로 7 분기 연속 상향됐다는 건 시장도 안다. 관건은 이번 분기에 8 분기 연속 상향이 나오느냐, 아니면 기존 범위 안에서 동결되느냐다. 분기당 200 억 달러 안팎의 집행이 계속되면 **잉여현금흐름**(회사가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) 마진은 20% 전후에 머물 수밖에 없다. 여기에 지난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Anthropic 과의 100 억 달러 규모 컴퓨트 리스 협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.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, 만약 딜이 실현되면 막대한 설비투자의 외부 수익화 채널이 생기는 셈이다. 실적 발표 콜에서 이 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 지켜볼 대목이다.

메타 플랫폼스 주가 vs S&P500 — 발표 전 약 90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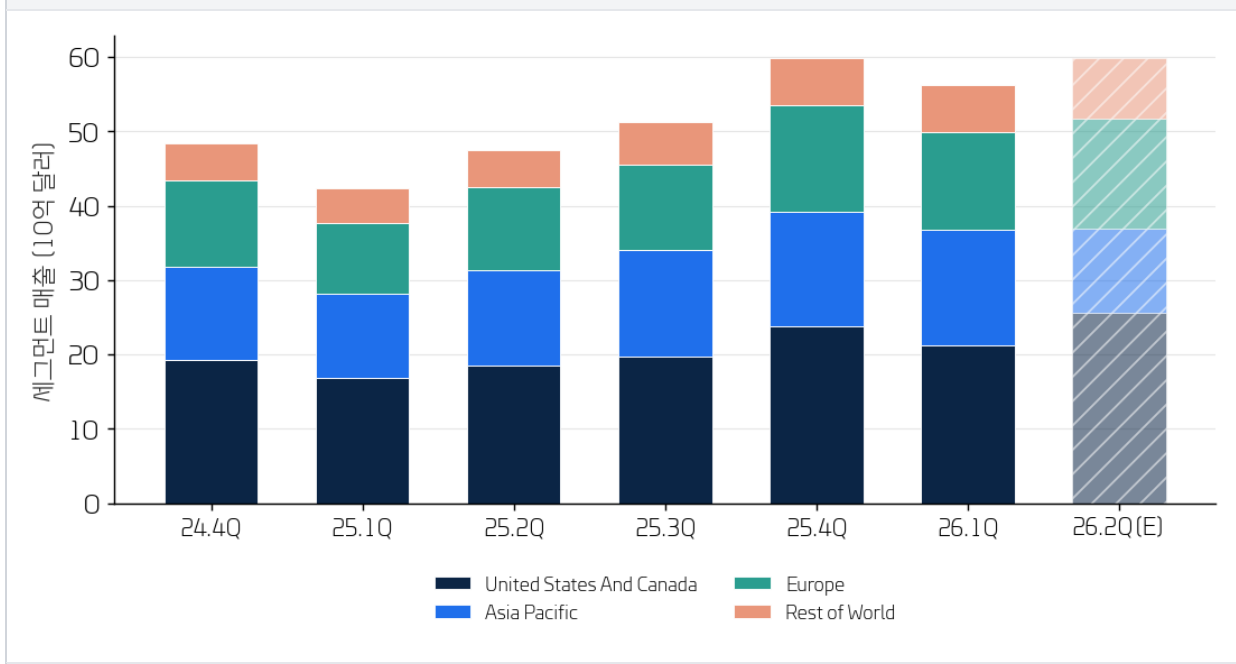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에이전틱 커머스와 소송 리스크, 양면의 관전 포인트

작전 분기에 비즈니스 AI 대화가 주간 100 만 건에서 1,000 만 건으로 10 배 뛰었고, 패밀리업 기타 매출(WhatsApp 유료 메시징 등)이 전년 대비 73.5% 성장했다. 이 에이전틱 커머스의 **스케일업 궤적**이 이번 분기에도 유지되는지가 중장기 내러티브의 설득력을 좌우한다. 반면 바로 며칠 전 테네시주에서 인스타그램의 중독성 설계를 둘러싼 재판이 시작됐다. 경영진이 이미 '중대한 손실 가능성'을 직접 경고한 사안이라 실적 자체보다 소송 진행 경과와 추가 공시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EU 규제 역풍과 중국의 Manus 인수 차단도 배경 리스크로 남아 있다.

메타 플랫폼스 세그먼트 매출 구성(사업부/지역)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옵션시장은 큰 폭의 변동을 기다리고 있다

옵션시장이 반영한 예상 변동폭은 약 **12.4%**다. 30 일 내재변동성이 52%를 넘고, 풋·콜 거래량 비율은 0.52 로 콜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. 시장 참여자들이 상방에 더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다. Raymond James 가 발표 8 일 전에 목표주가를 825 달러에서 850 달러로 올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. 다만 달러 약세(달러인덱스 98.5 가정)에 따른 환율 순풍 약 2%포인트가 이미 기대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, 매출 상회 폭이 크지 않으면 주가 반응은 제한적일 수 있다.

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읽는다

매출이 가이드언스 상단인 610 억 달러를 넘기고 설비투자 가이드언스가 동결되면, 옵션시장이 반영한 12% 이상의 상방 반응이 나올 여지가 있다. 가이드언스 중간 수준인 590 억~600 억 달러에 특별한 서프라이즈 없이 착지하면 주가는 제한적 범위에서 움직일 공산이 크다. 반대로 매출이 하단 580 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거나 설비투자가 또다시 상향되면, 잉여현금흐름 압축 우려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우리는 매수(bullish) 스탠스를 유지하되 확신도는 중간이다. 광고 엔진의 구조적 성장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, 설비투자 궤적의 출구가 좀 더 선명해지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비중을 높이기보다 실적 확인 후 판단하는 쪽이 합리적이라고 본다.

한눈에 보는 관전 포인트

관전 포인트	시장 눈높이(컨센서스)	회사 가이드스	우리가 보는 초점
매출	가이던스 중간 부근	\$580 억~610 억	상단 근접 여부가 광고 체력의 바로미터
주당순이익	약 \$7.16	—	세율 정상화 감안, \$7.0~7.5 범위 예상
광고 성장률(전년 대비)	+25% 내외 정상화	—	기저효과 속 둔화 폭이 관건
설비투자(연간)	\$1,250 억~1,450 억 유지	\$1,250 억~1,450 억	8 분기 연속 상향 여부, Anthropic 딜 언급
잉여현금흐름	\$100 억~130 억 추정	—	마진 20% 전후 유지 가능 여부
다음 분기 가이드스	—	발표 시 확인	2027 년 설비투자 힌트 여부가 중장기 열쇠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*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